



순창군은 다문화가족들이 행복한 지역만들기를 위해 1개월간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대책마련에 들어가 다문화가족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순창군 다문화가족 행복 대책 수립

1개월간 생활실태조사 실시·분석결과 따른 대책 마련 실시

순창군은 다문화가족들이 행복한 지역만들기를 위해 1개월간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에 들어가 다문화가족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군은 지난 10월 4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다문화 가족 287세대에 대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주거, 경제, 취업 문제는 물론 부부갈등, 자녀교육, 긴급지원 요구 등 10개 항목에 대한 현장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287세대 중 274가정이 응답해

참여율이 95.4%에 달하고 대면 상담을 통해 어느때보다 다문화 가족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담아낸 조사였다는 후문이다.

군은 설문조사 취합이 끝남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세우기 위한 분석에 나서 최근 결과를 도출한 것.

군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이 요구하는 가장 큰 개선분야는 자녀학습 여건과 한국어교육 및 경제 여건 개선 요구였다. 자녀교육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가정은 18세대였다.

군은 분석결과 8세대에 대해서는 다

문화차이 학습활동지원사업과 연계하고 드림스타트 내 자녀 교육사업과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학습지도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중고생 대학생 학비부담을 호소한 8세대에 대해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및 민간단체 연계를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자녀양육에 전반적인 도움이 필요한 2세대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수시 사례 관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만전 기여

144명의 가족관계 해체 확인 후 지속적인 보호 결정

겨울이 되면 '송파세모녀사건'이 생각난다. 지난 2014년 2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갖게 하였을 뿐 아니라, 관련 법안이 개정 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사회보장에 있어서 보장의 수준이나 범위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남원시도 이에 발맞추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례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가장 먼저 살펴 볼 것은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

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대한 권리구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급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수급권자로부터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등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먼저 수급자의 보장을 유지하고, 후에 생활보장위원회에 가족관계해체 심의 건을 상정하여 지속 보호를 결정한다. 일단 보장을 유지하고 추후 심의를 거쳐 앞서 유지한 보장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선 보장 후 심의 방식을 채택하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족관계 해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위해 남원시는 2016년 4월 29일 31가구 56명에 권리구제를 한 1차 심의를 시작으로 7월25일 18가구 31명(2차), 11월17일 28가구 57명(3차) 총 3회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총 77가구 144명의 가족관계 해체를 확인하여 지속적인 보호를 결정했다.

이 밖에도 본인의 재산행사가 어려우나 공부 상 공동소유 재산으로 인해 탈락 위기에 있는 가구, 압류 등 패자·매매가 어려운 차량소유로 인해 사실상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가구, 가정경제 방지를 위해 별도 가구를 형성시 필요한 경우의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남원시 건축업무 최우수기관 선정

2년 연속 쾌거... 빈집정비·활용 반값 임대주택 등

남원시는 전북도에서 주관하는 2016년도 주택 및 건축업무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남원시는 주거환경개선, 주거복지, 건축행정 건실화 등 주거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남원시는 총 114동의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7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빈집정비,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공동주택지원을 펼쳤다.

특히, 서민층 250가구의 노후된 지붕, 부엌, 화장실 등의 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21가구에는 저소득임대보증금 1억 4천만원을 지원하여 주거 취약층 주거안정 정책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남원=유영철 기자

었다.

또한, 추천 용담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추천 송치에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운봉 용산에 주거 취약지 생활여건 개선사업, 광한루원 주변 간판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의 공모에 선정되어 총 2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다.

아울러, 시민의 편의 위주의 건축행정 서비스도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복합민원팀을 운영하여 건축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만족도를 높였다.

불필요한 구비서류 및 근거 없는 불합리한 사항은 규제완화 조례개정 등을 통해 간소화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로컬푸드



임실군 한우배내기 사업 '순항'

임실군이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역점 시행 중인 '한우배내기 사업'이 큰 관심과 참여속에 순항하고 있다.

'한우배내기 사업'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암송아지 입식을 지원하고 2년 전·후 암송아지 가격으로 현금 상환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 대상농가 6곳을 선정해 12두를 분양한데 이어 지난 8월 관촌면 소재 가축시장 경매를 통해 배냈소 우랑 암송아지 2두를 1개 농가에 분양했다.

군은 올해 7농가에 총 14두를 분양했으며, 노령화된 농촌에 소일거리를 제공해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활력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배내기 사업을 통해 한우 번식기반을 다지고 어르신의 활력 있는 노후생활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한우배내기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암송아지 구입 및 입식 관련 사항을 전문기관인 임실축산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동부권 발전사업 발굴 탄력

전북 동부권 6개 시·군(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에서는 동부권 중장기 발전사업 발굴을 위해 전북도와 협력하여 동부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10월 20일부터 국토연구원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남원시에서는 장기발전 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국토연구원에 제출하였고 국토연구원에서는 제출된 자료 및 기존 발전계획 등을 기초로 현안분석 등을 추진해왔다.

국토연구원은 12월 7일 남원을 방문하여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허브식품 융복합사업, 남원예촌 사업지구 사업현장 등을 둘러보고, 동부권 발전사업에 대한 이환주 시장 의견을 듣고자 면담을 가졌다.

이환주 시장은 "전북도 발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동서간 사업비 재원관계를 분석하고 전북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제안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동부권 지역은 산악이 중심지역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산악관광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도 제시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경찰 생활치안활동 호응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 남계파출소(소장 이동권)에서는 주민 왕래가 많은 장날 범죄예방 및 주민 접촉을 통해 치안관련 여론을 수렴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는 생활치안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평소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날에 시장주변을 순찰하며 주민들과 접촉, 경찰 활동사항을 홍보와 더불어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여 치안시책에 반영키로 하였으며 더불어 시장주변 골목길 등을 범죄취약지역으로 설정 집중 순찰활동으로 범죄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자연스러운 도보순찰을 통해 교통혼잡방지활동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이동권 파출소장은 "도보순찰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치안활동으로 범죄를 예방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빈틈없는 생활치안활동을 실시, 안전한 순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